

특허청,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개최

특허청은 우수한 반도체 설계기술의 공개적 발굴·포상을 통해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설계인력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한편으로 관련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제9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 설계대전은 <대한민국 반도체설계 공모전>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해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국무총리상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을 각각 늘릴 예정이다.

또 수상작에 대한 상금도 2007년 총 2000만원에서 2008년에는 41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렸으며,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를 지정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수상자와 수상기술은 공중파방송, 인터넷신문, 종합일간지, 전문지 등을 통해 보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설계대전이 국내 반도체 설계기술을 향상시키고 개발촉진을 가속화시켜 우수한 반도체설계 기술인력을 배출함으로써 현재 국내기업이 석권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시장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반도체 설계 관련기업 연구소, 대학 소속의 개인 또는 팀은 4월17부터 5월1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수상기술에 대한 시연은 11월 말경에 진행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4/18>